

옥수수시세 약세인 반면 대두박시세는 강세 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저가권의 옥수수시세

한동안 회복국면을 보이며 C&F 톤당 87불까지 상승했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미산 옥수수의 수출감소와 재고누증으로 인해 다시 약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월 18일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는 3월 선적기준으로 C&F 톤당 80~81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6월 선적기준은 83~84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산 옥수수의 수출감소예상은 대만 및 한국 등의 대량구매가 일단락되었고, 3월부터 아르헨티나 및 남아공의 옥수수 수출이 본격화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미산 옥수수시세가 지속적으로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태국산 및 중공산 옥수수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월 18일 현재 태국산 옥수수가 C&F 톤당 95불, 중공산 옥수수가 88불로 미산 옥수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처럼 중공산 옥수수가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6개종합상사(미쓰비시, 미쓰이, 이토포유류, 마루베니, 도오멘, 도쇼쿠)가 중공산 옥수수 장기공급계약을 위한 현지 교섭에

들어갔다.

장기공급계약기간은 금년 5월선적에서 내년 4월 선적까지이며 아직 물량과 가격면에서 정확한 결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의 마켓동향을 감안하면 가격결정은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4월부터 출하가 본격화될 남아공 옥수수는 한때 1,000만톤~11,000만톤의 생산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2월 상순 수분기에 고온으로 인해 감산이 예상되고 있어 USDA 및 현지 소식통들은 950만톤으로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은 810만톤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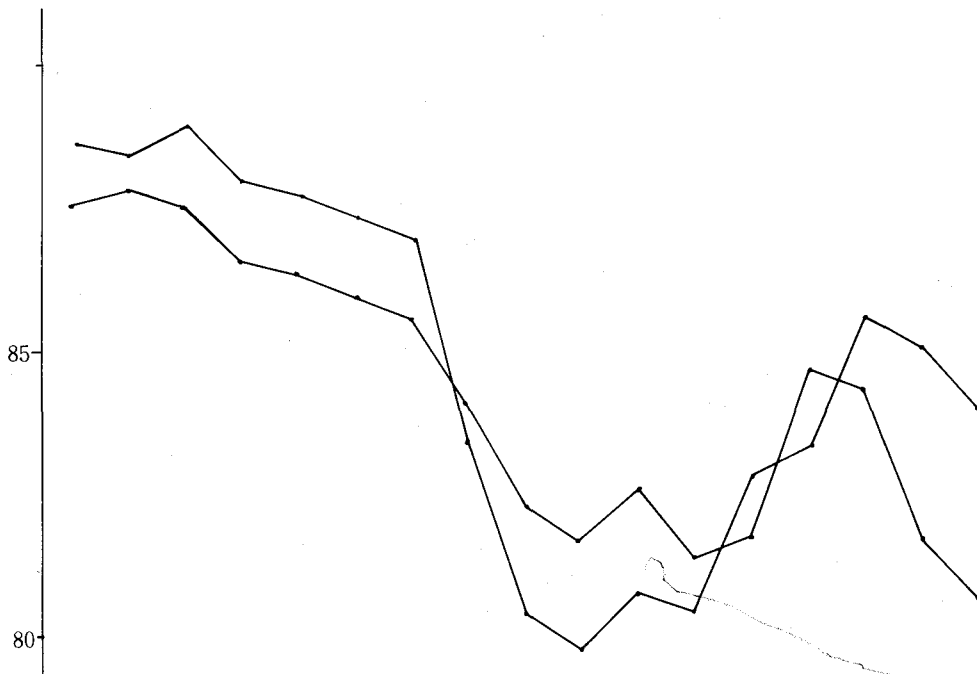
또한 한발로 인해 감산이 예상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대략 1,000만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월 15일 미농무성의 CROP REPORT는 금년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1,150만톤으로 예상했고, 지난해 생산량은 1,200만톤이었다.

신곡 옥수수에 대해서는 소련이 100만톤, 중공이 50~60만톤 구매할 예정이며 소련의 추가구매도 예상되긴 하지만 가격면에서 미산에 비해 다소 높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구매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수수도 300만톤정도 생산이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2)월	2	3	4	5	6	9	10	11	12	13	17	18	19	20	23	24	25
PNW	87.56	87.86	87.56	86.58	86.38	85.99	85.59	84.02	82.25	81.66	82.64	81.46	81.85	84.71	84.31	81.76	80.67
Gulf	88.55	88.45	88.94	87.96	87.76	87.37	86.98	83.40	80.45	79.86	80.84	80.45	82.84	83.30	85.67	85.07	83.99

될 전망이다이며 대략 230~240만톤이 내수용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수출시장에서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중 10만톤은 이미 일본이 계약에 들어갔다.

한편,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중공의 옥수수 수입량은 560만톤(전년 46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주요 옥수수생산지역인 북부로부터 남부 소비지역으로의 수송이 곤란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고가권의 대두박시세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약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대두는 금년도에도 수급호조로 인해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금년도 세계 대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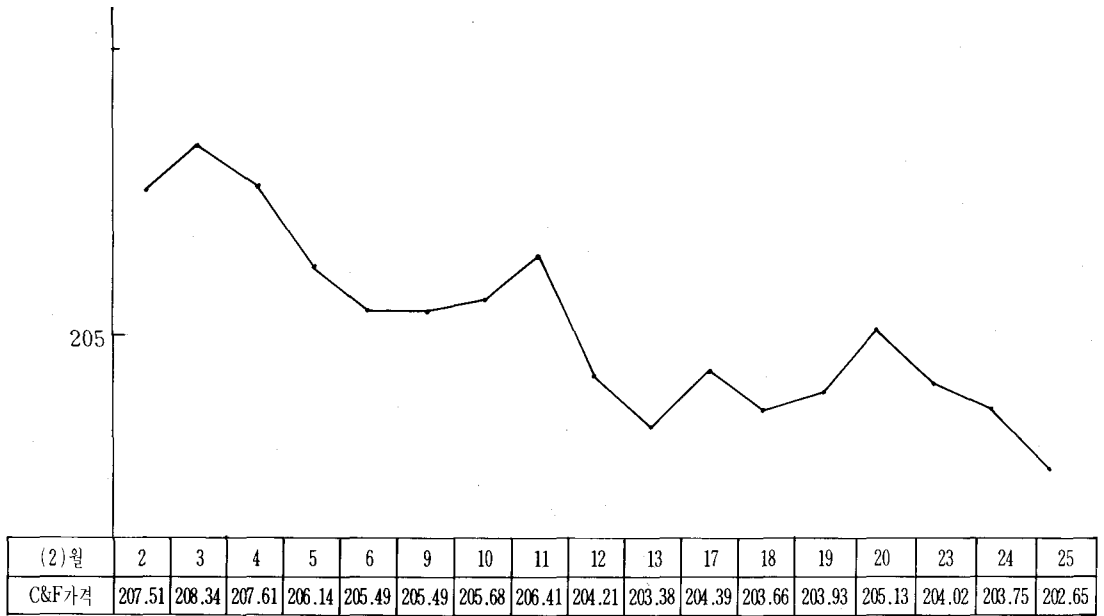
고는 2,273만톤으로 지난해의 1,755만톤에 비해 30%가량 늘어났고, 생산량 또한 9,886만톤으로 지난해의 9,653만톤에 비해 2.4%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수요측면에서 자국내 소비물량 및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년도 기말 재고는 지난해 수출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USDA예상에 따르면 금년도 기말 재고량은 2,509만톤에 달할 전망이다이며 이는 지난해의 2,273만톤에 비해 10.4%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세계 대두생산량을 국별로 보면 미국의 대두생산량은 5,462만톤으로 지난해의 5,711만톤에 대해 4.4% 감소할 전망이며 중공은 1,100만톤으로 지난해의 1,050만톤에 비해 4.8% 증가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 \$/MT



할 전망이다.

또한 남미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금년도 대두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USDA는 브라질의 대두생산량의 1,650만톤으로 지난해의 1,370만톤에 대해 20.4%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금년도 대두생산량이 770만톤으로 지난해의 730만톤에 대해 5.5% 증가할 전망이다. 그밖에도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소련 등의 대두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고, 캐나다, 멕시코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대두의 수급상황이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대두시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대두박은 지난해 부터 수급사정이 악화되면서 계속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2월 18일 현재 미산 대두박시세는 C&F 톤당 209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대두박시세도 205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대두박 수급상황을 보면 금년도 세계 대두

박 기초재고량은 244만톤으로 지난해의 271만톤에 비해 10%감소하였고 생산량은 6,227만톤 수준으로 지난해의 6,008만톤에 비해 3.6%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요 또한 증가될 전망이어서 기말재고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242만톤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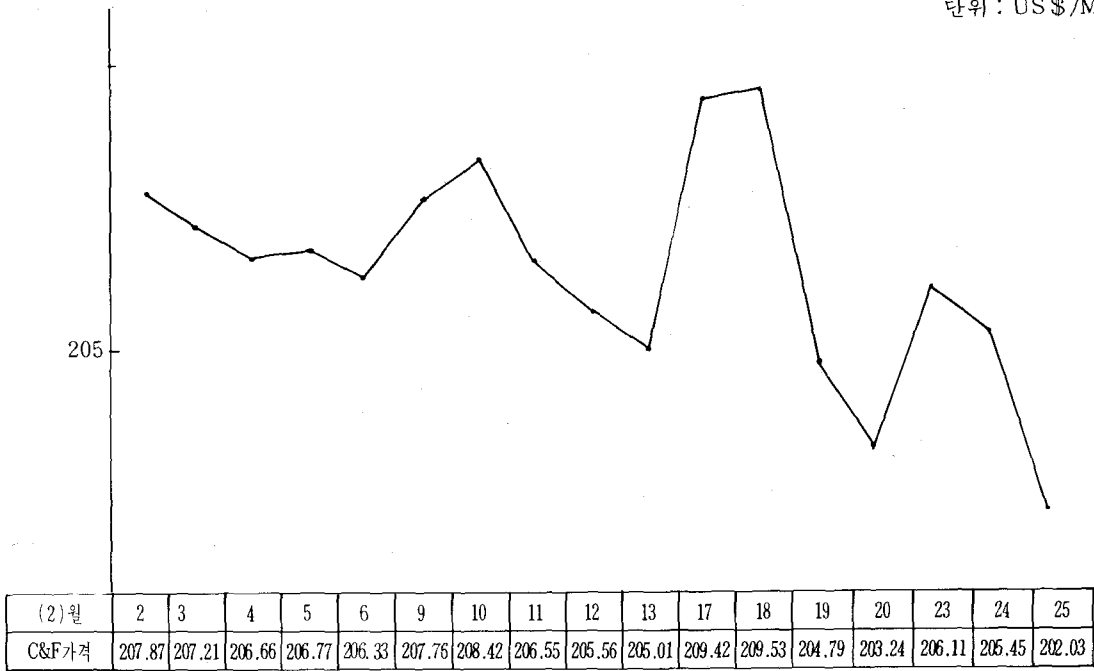
국별 대두박생산량을 보면 아르헨티나의 대두박생산량은 367만톤으로 지난해의 349만톤에 대해 5.2% 증가할 전망이고, 브라질은 1,039만톤으로 지난해의 966만톤에 비해 7.6%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가장 큰 생산국인 미국은 2,356만톤 생산예상으로 지난해의 2,264만톤에 대해 4%가량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주요 대두박생산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두박 기말재고는 수출증가에 상 등으로 인해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도 대두박 시세는 지난해 강세마켓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 기타 곡류시세 소폭 반등

전반적으로 옥수수시세가 약세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곡류시세도 약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맥시세는 C&F 톤당 73불 수준에서 탈피하여 77불대를 나타내고 있고 수수는 85불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수수의 경우 옥수수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나 소맥은 아직 옥수수에 대한 경쟁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의 소맥시세 반응은 EC지역의 수출여력감소와 호주지역의 사료용소맥 부족현상 등에 기인하고 있다.

호주의 소맥생산은 대략 2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사료용소맥(damaged wheat)의 발생여부

에 따라 시세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최근 호주의 소맥수확기에 기후조건이 양호해 사료용소맥(damaged wheat)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C와 호주의 가격제한기능이 약화되면서 캐나다산 소맥시세가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옥수수시세가 워낙 저가권에 있고, 호주에서도 ASW선별과정에서 일부 사료용소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급등현상은 없을 전망이다.

또한 기타 사료용원료중 소맥피시세는 C&F 톤당 85불로 다소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고, GSP는 60불대로 다소 약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